

##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 대상 3세 이상 ~ 12세
- 분류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는 우리문화그림책
- 인지분야 상상력, 이해력, 인성교육



### Ⅰ 왜 좋을까요?

부처님 오신 날에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사물(四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이란 범종, 범고, 목어와 운판을 일컫는 말로,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두드려 소리를 내는 4가지 물건을 뜻합니다.

'나무로 된 물고기'는 그 중 하나인 목어(木魚)에 대한 의미를, 스님들의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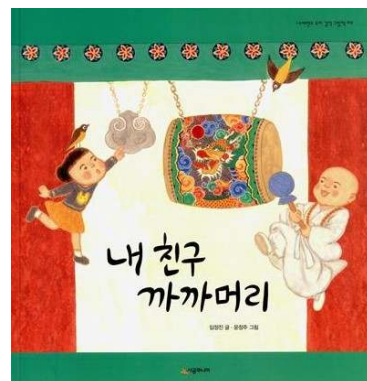
이 책은 못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절에서 목어는 보통 범종이 있는 누각에 달려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눈을 뜨고 깨어 있으니 나무로 그 모양을 만들어 두드려서 수행하는 사람의 잠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어가 변하여 스님들이 불경을 율 때 두드리는 목탁이 되었다는 내용은, 이 책을 읽어 주는 어른들에게도 우리 문화의 이해와 상식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에서 사용된 판화기법은 글의 내용과 잘 어울려 책을 읽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굵은 선과 강한 흑백대비를 이용한 고무판화 그림은 책의 첫 장부터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주제를 잘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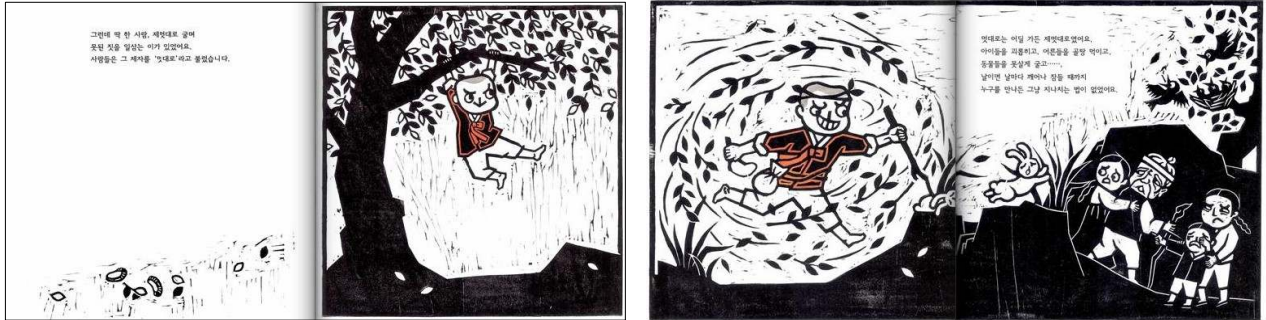
아이들을 위한 책 중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들은 많지만, 우리의 정신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 불교에 관한 동화책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월초파일을 맞아 절에 가기 전에 읽고 가면 좋을 책, 종교보다 우리 문화의 차원에서 불교를 보여주고자 하는 책인 '내 친구 까까머리'(임정진 글, 시공주니어)도 함께 추천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옛말처럼,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난 후 절에 가면, 그때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은 예전과는 다른 것이겠지요!



## 어떤 이야기일까요?

옛날 작은 절에 덕 높은 큰스님과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힘써 마음을 닦지만  
딱 한 제자 '멋대로'는 못된 짓만을 일삼습니다.



하루는 연못가를 지나다 물고기를 보고  
물속에서도 눈을 뜬다며 생트집을 잡아서는 죽여 버리고 맙니다.



그 일로 벌을 받은 '멋대로'는 죽어서 저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지은 죄의 대가로 물고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물고기로 태어난 '멋대로'는 착한 일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쁜 일을 하는지 두고 볼까요?